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228호 (2010년 11월 첫째 주)

연구기획조정실 · 관광지식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창경궁 옆 서울과학관 자리로 청사이전	3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도약.....	3
[환경부] 스마트폰으로 국립공원 관리한다.....	4
[문화재청] 「서천 봉선리유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5
[문화재청] ‘창녕송현동고분군’ , ‘조식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예고	5
[국토해양부] '10.9월 항공여객 및 화물 운송실적 꾸준한 증가세.....	6
[국토해양부] 경인아라뱃길 수변문화공간 조성 본격 착수.....	7
[국토해양부] 외국항공사 최신 안전정보 클릭하면 뜬다.....	10
[국토해양부] 관동팔경길, 섬진강테마로드 등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 착수.....	10
[지식경제부] 관광콘텐츠, 이제 ks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1
[한국공항공사]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수감기관 평가표창.....	12
[서울특별시] 2014년, 창덕궁 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	13
[서울특별시] 서울형 공공자전거 400대, 여의도 등 43곳에서 시범운영.....	14
[부산광역시] 부산시, 끊어진 해안 이어 경관전망 완성한다!	17
[부산광역시] 부산의 정체성을 살려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 공포.....	18
[부산광역시] 부산시, KTX 2단계 개통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	18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로 거듭난다.....	19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20
[광주광역시] 세계인과 함께 하는 '제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 성료.....	21
[대전광역시] 대전시, 3대.30년 전통업소 발굴.육성 기준 마련.....	23
[대전광역시] 대전시, 숲과 꽃의 녹색도시조성 본격 추진.....	24
[울산광역시] ‘KTX 울산역 진입도로’ 개통.....	25
[경기도] 동북아 최대 국제기구 NEAR 총회 경기도에서 열린다.....	25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 대상별맞춤 숲체험프로그램 인기	27
[경기도] 경부고속철도(KTX) 수원역 운행	28
[강원도] 중국 메이저 여행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29
[강원도] 강원도, 동해안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키로	30
[충청북도] 21C 고속철도 시대의 중심메카 오송역 개통	30
[충청북도] 올 3/4분기 충북지역 관광객 대폭 증가	31
[충청북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결과 공식 발표	32
[충청남도] 서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공모선정	32
[충청남도] 천수만을 국제관광휴양거점으로 조성 박차	33
[전라남도] 남해안선벨트 사업 추진 탄력	34
[경상남도] 영남권 시도교육청과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성공 손잡다	34
[제주특별자치도] 신비의 사라오름 산정호수 11월 1일부터 개방	35
[제주특별자치도] 용수리 해안변 친환경 올레길로 탈바꿈	36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제주가 국제크루즈 메카항으로 자리 잡아	37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아프리카(케냐) 외래객 방문 신기록 수립	38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초강세 호주달러로 관광업 울상	38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밴쿠버,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	39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영국 MICE산업 361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	39
[해외동향][KOTRA] 스페인 해양레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	40
[해외동향][KOTRA] 중국인 해외여행객, 숫자도 늘고 씀씀이도 더 늘어	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창경궁 옆 서울과학관 자리로 청사이전

- 문화부는 24년간의 광화문청사시대를 마감하고, 11월 1일(월)부터 신청사에서 정상업무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립서울과학관 본관(종로구 와룡동 2-70번지 창경궁 옆)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현 광화문 청사는 1961년 10월 준공되어 1986년 2월까지 내각사무처,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기획원 등에서 사용했고, 문화부는 1986년 3월부터 현재까지 24년 8개월 동안 사용해왔다.

현 문화부 청사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청사를 이전하게 된 문화부는 도심의 비싼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방안 대신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로 문화부는 국립서울과학관 본관을 사용하고 국립서울과학관은 동 과학관의 특별전시관 및 별관을 사용하는 청사이전 방안이 결정되었다.

문화부는 그 동안 국립서울과학관 본관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10월 말까지 청사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운영지원과 김원우(02-3704-9111) | 등록일 : 2010.10.26)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도약

-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 10개 세계 유수기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11번째 기관으로 참여
- 개관 3년 만에 국제적 위상제고 및 역량강화 계기 마련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은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 생물관련 세계의 유수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생물다양성 과학 파트너 컨소시엄에 11번째 기관으로 가입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과학파트너 컨소시엄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주관하에 2006년도에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 세계 유수의 생물 관련 6개 기관으로 발족되었고,

이후 4개 기관이 추가되어 현재 1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국립생물자원관이 11번째 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 참여기관 :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영국 큐 왕립식물원, 영국 에딘버러 식물원,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독일 연방자연보전청, 일본 히가시야마 식물원, 캐나다 몬트리올 자연사박물관, 벨기에 왕립자연보전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 야생생물보전위원회, 멕시코 환경·자연자원 사무국

컨소시엄은 우수한 생물 전문가와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기관들이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그 목적이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컨소시엄 가입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고 있는 CBD 제10차 당사국총회 기간중인 2010년 10월 22일 CBD 사무국 사무총장(Ahmed Djoghla)과 국립생물자원관장

간의 업무협약(MOU)체결 통해 이루어 졌다.

협약체결은 사무총장이 '10.8.24 국립생물자원관 방문시 자원관의 인력, 시설, 교육 및 연구 성과 등이 훌륭함을 표명하면서 CBD사무국과의 MOU 체결을 제안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한지 불과 3년 만에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 세계적 권위를 지닌 기관들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도국의 생물상 조사 및 인력 양성, 국제사회 역할 증대 및 유엔 활동 적극 관여 등과 함께 유용한 해외생물자원 확보기반 강화의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담당: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총괄과 임문수(032-590-7101) | 등록일 : 2010.10.25)

[환경부] 스마트폰으로 국립공원 관리한다

- 12월까지 탐방안내 및 현장관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탐방객의 공원 탐방을 돕고, 효과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장에서의 순찰단속업무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하여 사용 중인데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명확인과 과거 단속이력 조회, 단속결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이미 200대의 스마트폰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월까지 개발 예정인 탐방안내용 어플리케이션은 우선적으로 북한산 둘레길에 적용되는데 노선안내는 물론, 주요 지점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특히, 기존에는 현장에서 GPS, 디지털카메라 등의 기기와 기록 용지를 사용하고, 사무소에 복귀해서 이를 전산처리 해야 하는 등 업무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간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단은 자연자원 조사과정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희귀식물을 발견하면 사진과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서식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안전점검을 위해 290여 개 등산로의 시설물 현황과 정비이력을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12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는데 반달가슴곰의 위치정보와 이동경로가 스마트폰에 표시되어 위치추적 관리가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주홍준 정보화전략팀장은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고 산악지역에서의 전파수신율이 높아져 국립공원에서도 스마트폰 시대를 열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탐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환경부, 담당: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보화전략팀장 주홍준 | 등록일 : 2010.10.28)

[문화재청] 「서천 봉선리유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10년 10월 22일 자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사적 제473호 ‘서천 봉선리유적(舒川 鳳仙里遺跡)’ 주변 3필지 2,833㎡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했다.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에 위치한 ‘서천 봉선리유적’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유적이 확인되어 2003~2004년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마한·백제·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었으며 금강하류 지역의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회문화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백제시기의 무덤에서는 환두대도, 금동귀걸이 등 중요유물이 다량 출토되어 백제사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11월 사적(254,091㎡)으로 지정되었다.

금번 추가지정은 봉선리 유적 주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상기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선리 유적의 연장선상으로 보여 지는 문화유적이 다량 분포하고 있어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예고기간을 거쳐 이번에 사적으로 추가 지정 하게 되었다.

《 추가지정 세부내용 》

- 종별/명칭 : 사적 제473호 「서천 봉선리유적(舒川 鳳仙里遺跡)」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번지 일원
- 지정구역 : 지정면적 55필지 256,924㎡, 기 지정면적 52필지 254,091㎡,
금회 지정면적 3필지 2,833㎡
- 관리단체 : 서천군

(문화재청, 담당: 보존정책과 최장락(042-481-4838) | 등록일 : 2010.10.25)

[문화재청] ‘창녕송현동고분군’ , ‘조식유적’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7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중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및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의 문화재구역을 일부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후 매 10년 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사업이다.

‘창녕송현동고분군’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의 실효가 없어 지정해제 키로 하여 애초 236,447㎡(79필지)에서 233,437㎡(76필지)로 3,010㎡의 문화재구역이 축소될 예정이며, ‘조식유적’의 경우에는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서원 담장 밖 사유지 일부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여, 애초 71,915㎡(92필지)에서 71,813㎡(91필지)로 102㎡의 문화재구역이 축소될 예정이다.

2010년 10월 27일 시행된 조정예고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

회 사적분과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문화재청, 담당: 보존정책과 최장락(042-481-4838) | 등록일 : 2010.10.28)

[국토해양부] '10.9월 항공여객 및 화물 운송실적 꾸준한 증가세

- 국토부, '10.9월 항공운송동향 분석 발표

장기간의 추석연휴로 인한 항공여객 수요 증가로 지난 9월 국제선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24.5%, 국내선 항공여객은 13.4%, 항공화물 수송량은 4.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9월 항공운송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24.5% 증가한 329만명, 국내선의 경우도 장기간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3.4% 증가한 158만명의 운송실적을 기록하였고, 항공화물은 추석연휴 및 반도체 등 IT부품의 재고량 증가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28.8만톤을 수송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국제선 여객은 추석연휴 등으로 인한 직항여객 수요 증가로, 역대 9월중 최고치였던 '07년(295만명)보다도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여객의 공항별 실적을 보면, 추석연휴 임시편 증대 및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로 김포(10.2%), 김해(9.9%), 제주(20.4%) 등 국내공항 실적이 다소 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 수송량은 57만명으로 나타났으며, 분담율은 '09.9월 30.5%에서 이번달에는 34.7%로 다소 상승하였다.

작년 9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항공화물 수송량은 추석연휴 및 IT제품 재고량 증가로 수송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9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28.8만톤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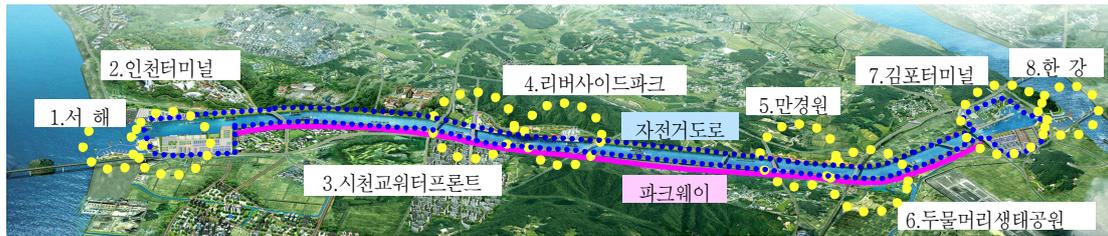
국토부는 추석연휴 및 직항여객 수요 증가로 대폭 개선된 항공여객 수송실적이, 경기회복 및 중국 항공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4분기에도 지속 개선될 것이며, 또한, 항공화물은 원유 및 환율의 안정세와 소비경기 호전 등으로 전통적인 항공화물 성수기인 4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부, 담당: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윤현식(02-2110-6471) | 등록일 : 2010.10.26)

[국토해양부] 경인아라뱃길 수변문화공간 조성 본격 착수

- 내년 10월까지 주요 경관거점에 수향 8경, 뱃길따라 경관도로(15.6km), 자전거·인라인·보행로 등 파크웨이 조성
- 서울시 등 주변 어디서나 유람선, 자전거, 승용차,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K-water(사장 김진호)는 경인아라뱃길을 역사와 문화가 함께 흐르는 아름다운 수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친수경관 조성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아라뱃길 친수경관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설계안을 확정, 내년 10월 아라뱃길 개통에 맞추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친수경관 계획은 크게 8개의 테마공원인 수향 8경(水鄉八景)과 선형의 녹지축인 파크웨이(Parkway)로 구분된다.

수향 8경은 경관이 수려하고 방문객이 집중되는 아라뱃길 주요거점에 조성될 계획이며, 이중 서해와 한강의 자연경관을 주제로 한 제1경과 8경은 장래계획으로 추진된다.

* ‘수향’은 물길이 아름다운 지역이나 하천 주변의 마을을 의미

제2경은 경인항 인천터미널 주변 항만친수시설 부지 내에 높이 15m의 섬을 조성하여 서해 낙조와 어우러진 섬마을 경관을 재현할 계획이다.



2경 인천터미널

2경 인천터미널

제3경은 검암·검단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시천교를 중심으로 수상무대, 수변스탠드, 분수 등 도시 워터프론트로 조성되며, 제4경 리버사이드파크는 아라뱃길 협곡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암벽을 이용한 폭포, 협곡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3경 시천교워터프론트

4경 리버사이드 파크

제5경 만경원은 김포평야를 배경으로 전통누각, 전통담장, 소나무 등을 활용하여 한국적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제6경 두물머리생태공원은 굴포천과 아라뱃길이 만나는 합류부로서 약 20만㎡의 천변저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이다.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데크를 조성하여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제7경은 한강과 아라뱃길을 잇는 관문인 김포터미널에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대중적 마리나 테마파크와 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5경 만경원

6경 두물머리생태공원

7경 김포터미널

이와 함께,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되는 파크웨이는 폭 30~60m의 친수경관녹지로서 아라뱃길의 긴 물길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주제의 이벤트 광장과 뱃길 전망공간, 야생화 산책길 등이 조성되어 누구나 편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뱃길 남측에는 15.6km의 경관도로가 조성되고, 뱃길 양쪽을 따라 자전거·인라인·보행로 약 40km가 단절없이 연결되며,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포켓파크 22개소가 조성된다.



파크웨이 조감도



파크웨이(굴현교 남단)

이러한 친수경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아라뱃길 수변은 레저·환경이 어우러진 국민 휴식 공간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지역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라뱃길 수변문화공간은 서울특별시 등 주변 어디에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경관도로를 이용하여 승용차로도 접근이 가능하며, 한강과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와 여의도에서 출발하여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등으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아라뱃길 친수경관 개요>

구분	주요시설	특징
수향 8경	제1경 서해(장래계획)	서해 수상레저시설
	제2경 인천터미널	섬마을 테마공원, 여객터미널 광장
	제3경 시천교 워터프론트	선착장, 수상무대, 수변스탠드
	제4경 리버사이드파크	폭포, 경관전망대
	제5경 만경원	전통누각, 담장, 나루터
	제6경 두물머리생태공원	천변저류지 생태공원, 생태체험학습
	제7경 김포터미널	마리나 테마파크
	제8경 한강(장래계획)	한강 수상레저시설
파크웨이	경관도로	아라뱃길 남측 15.6km
	자전거·인라인·보행로	아라뱃길 양측 41.3km
	포켓파크(쌈지공원)	22개소

(국토해양부, 담당: 아라뱃길지원팀 오송천(02-2110-8437) | 등록일 : 2010.10.27)

[국토해양부] 외국항공사 최신 안전정보 클릭하면 뜬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62개 외국항공사에 대한 지연·결항률 및 사고이력과 국제안전평가결과 등 안전관련 정보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 외국항공사 운항현황('10.10월 기준) : 28개국 62개 항공사(여객 45·화물 17)

국토해양부는 금년 4월부터 매분기별로 외국항공사의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항공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홈페이지에 「항공안전정보공개」 제도를 운영 중이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aviation.mltm.go.kr>

금번에 제공한 주요내용은 ① 국내 취항 62개 외국항공사의 최근 1년간('09.10~' 10.9)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률 ② 62개 항공사 중 '07.10월 이후 사망사고 발생이력이 있는 항공사 명단 ③ FAA(미연방항공청)·EU(유럽연합)·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 결과* 등이다.

〈외국의 안전평가결과〉

* EU 블랙리스트 명단('10.9.9) : 필리핀 등 26개국(유럽내 취항 제한)

* FAA 안전평가 2등급('10.8.23) : 인도네시아 등 23개국(미국내 취항 제한)

* ICAO 안전우려국 : 카자흐스탄 등 12개국(ICAO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항공안전평가 결과)

이러한 안전정보 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이 있거나 지연·결항률이 전분기보다 높아진 항공사에 대해 안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외국항공사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 공개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담당: 항공정책실 운항안전과 김기호(02-2669-6476) | 등록일 : 2010.10.27)

[국토해양부] 관동팔경길, 섬진강테마로드 등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 착수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09.12)과 해안권별 종합계획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안의 경관, 역사, 문화 등 지역의 공유자원 활용하여 광역경제권을 넘어선 지역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각 지자체에 대한 예산교부 등을 시작으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해안경관 개선 사업 등을 지자체와 분담하여 시행해 나가게 된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예전에 화랑들과 송강 정철 등의 문인들이 심신단련과 문학적 영감을 찾아 걸었던 동해안길을 따라 천혜의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보형 관광 코스(278.9k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체구간을 지역특색에 맞게 청정자연길, 미항길, 솔향기길, 기암절벽길, 역사문화길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2~3일의 도보여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현재 지자체별로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보행길을 연계할 수 있도록 미연결구간

(16.75km)을 데크, 교량 등으로 연결해나가는 데 국비가 중점 지원되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하여 제주올레길보다 규모가 크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아름다운 세계적인 명품 도보 여행길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지자체에서는 연계노선 내의 기본적인 탐방로 정비와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마케팅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보 여행길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영호남 통합의 상징성이 큰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하동의 토지(소설)·녹차·재첩, 광양의 매화·명상 등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도 조성된다.

금년에 설계를 착수하여, ‘13년까지 섬진강변 42km 일원에 수변 산책로, 쉼터, 만남의 광장 등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며, 지리산 둘레길, 최참판댁, 화개장터 등 지역의 관광명소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남해안의 중심 관광 휴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안권의 고유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해안마을 미관개선 사업, 해안경관 조망공간사업도 지난 7월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울산동구 주전마을 등 5개 해안마을의 미관개선 사업을 통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장기적으로 그리스 산토리니와 같은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고, 경남 남해 등 경관이 우수한 12개의 해안지역에 창의적인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의 관광 자원과 서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해안마을(5개소) : 울산동구, 전북부안, 전남고흥, 경남하동, 인천강화

조망공간(12개소) : 경남(남해, 통영, 거제), 전남(강진, 완도, 동부권), 부산, 충남(태안, 보령, 당진), 강원(동해), 경북(경주)

국토해양부는 금년부터 착수되는 시범사업이 동서남해안을 글로벌 관광지대로 발전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안경관, 역사·문화 등 고유한 지역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활용함으로써 지자체간 협력을 유도하는 등 초광역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안경관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담당: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이영호(031-436-8913) | 등록일 : 2010.10.27)

[지식경제부] 관광콘텐츠, 이제 ks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관광정보 관리 지침 ks 제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해 온 관광정보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정보 관리 지침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유형의 관광콘텐츠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관광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광정보의 분류 및 관리 지침에 대한 ks 제정을 10월 27일 예고 고시하고, 연말까지 ks 표준안에 대해 두루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ks 표준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제2010-463호('10.10.27) 참조

* ks 표준안은 관광정보 범주와 분류체계, 관광정보의 수집·처리·전달·저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전국적으로 약 50,000건의 관광콘텐츠가 생성되어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보의 가치가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사장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지식경제부, 담당: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02-509-7279) | 등록일 : 2010.10.28)

[한국공항공사]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수감기관 평가포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2010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최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표창했다.(10월 22일)

*우수기관 :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국감과정에서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기관장의 충실한 답변과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을 성실히 시정조치하였으며, 우수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적 경영인프라를 구축하여 평가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장비를 국내 공항뿐 아니라 필리핀?터키?수단 등 해외공항에 수출함으로써 항행안전기술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점과, 3년 연속 고객만족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서비스품질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2010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준 수감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공항공사에게는 격려 및 표창패 수여와 함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기관의 업무수행 실적 및 역량을 제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소속 위원들이 3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실적 및 역량, 국정감사 자료제출, 국정감사 준비,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소위원회의 최종 평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이번 피감기관 평가제도는 국정감사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선도적으로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한국공항공사, 담당 : 양승의 | 등록일 : 2010.10.25)

[서울특별시] 2014년, 창덕궁 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창덕궁 맞은편 궁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 돈화문국악예술당 들어서
- 왕, 왕비 등의 궁중생활 모습과 각종 제례 모습을 디지털 기술로 재현
- 국악의 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연장, 연습실 및 국악교육체험실 등 조성
-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함께 돈화문지역 역사문화 거점 역할

2014년이면 창덕궁 맞은편에 궁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과 돈화문국악예술당이 들어서, 이 일대가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시관과 국악당이 들어설 자리에는 현재 2개의 주유소가 있어 전통적 역사미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지역의 정체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조선후기 정궁인 창덕궁앞 돈화문로는 조선시대 왕의 길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역사도시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국악·한복·전통공예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점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2월 종로구 권농동, 와룡동 등 돈화문로 일대 147,86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을 고시하고, 오는 28일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은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서 결정된 돈화문지역 역사문화 거점시설로 돈화문 건너편에 있는 2개의 주유소(비원주유소, 돈화문주유소) 부지에 건립하게 될 「궁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과 「돈화문국악예술당」에 대한 실시계획이다.

2개의 건물은 창덕궁 등 역사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한옥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와 시공사 선정후 201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2014년 상반기중에 완공 예정이다.

「궁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은 와룡동 5-9 외2필지상에 지하2층/지상1층 연면적 1,700㎡ 규모로 건축비 약 1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최신 디지털기술과 전시기법을 활용해 왕, 왕비 등의 궁중생활 모습과 각종 제례 모습을 생생히 재현할 예정이다.

「돈화문국악예술당」은 와룡동 12-2 일대에는 지하3층/지상1층 연면적 1,630㎡ 규모로 건축비 약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공연장, 연습실 및 국악교육체험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이곳은 국립국악원의 모태가 된 이왕직아악부와 판소리, 창극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조선성악연구회가 위치하였던 근대기 전통국악문화의 근거지로 현재도 국악전수소, 국악기점 등 국악과 관련한 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으며, 돈화문로는 '94년 국악의 해를 기념하여 '국악의 거리'로 지정되기도 해 주변 시설과도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 앞에서 종로에 이어지는 '돈화문로 일대'는 왕이 행차하던 도로로서 대로-시전행랑-피맛길의 원형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임과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장소로서 최근 재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전통문화시설 건립은 돈화문로 지역이 세계적인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으로서 서울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장소로 탈바꿈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사문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담당: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박기철(02-731-6703) | 등록일 : 2010.10.28)

[서울특별시] 서울형 공공자전거 400대, 여의도 등 43곳에서 시범운영

- 서울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빌려 탈 수 있는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 자전거, 첨단 IT기술 적용한 스마트 단말기 장착 등 앞선 기술 선보여
 - 자전거끼리 연결반납 기능, 자가잠금 기능 탑재로 자전거 반납편리성 확보
 - 주행거리속도, 운행시간, 열량 소모량 등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단말기
- 여의도 25개소, 상암DMC 18개소 이용자 동선 고려한 자전거 보관소 구축
- 공공자전거 운영, 유지보수 등 공공자전거시스템 관리하는 관제운영센터
- 365일 이용가능,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운영
- 31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오픈행사

서울에도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Velib)와 같은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31일(일) 여의도와 상암동DMC 일대 대표적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역 43곳에 공공자전거 400대를 비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자전거시스템은 여의도로 출근하는 시민이 지하철역에 하차한 후 인근 자전거 보관소에서 회사 주변 자전거 보관소까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개념으로,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 캐나다 몬트리올의 빅시 등 자전거 선진국에서 운영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가 캐나다 몬트리올을 순방하며 빅시(Bixi)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둘러본 후 도입된 것으로써, 서울시는 1년여 동안 서울시 자전거 도로 상황에 맞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이는 공공자전거시스템은 서울을 세계적인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발돋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전거 공유를 통해 방치자전거 및 자전거 주차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유류비절감, 대기오염의 주범인 CO2 발생을 저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시스템은 크게 자전거와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운영을 중앙에서 제어하는 관제운영센터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전거, 첨단 IT기술 적용한 스마트 단말기 장착 등 앞선 기술 선보여>

우선 공공자전거는 스마트 단말기 등 첨단 IT기술을 적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을 선보인다.

핸들부에 장착된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이용하는 동안 주행거리, 속도, 운행시간 등 운행정보와 주행에 따른 열량 소모량 등 헬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거리의 연결반납 기능도 탑재해 보관소에 자전거가 가득 차 있어도 이미 거처된 자전거에 연결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 공공자전거만의 특징으로 세계 최초 사례다.

자가잠금(Self-lock)기능도 있어 자전거 반납이 편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생산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택해 서울시 고유의 생활형 자전거를 제작했고, 내장 3단 기어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게 했다.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를 최대한 반영해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채택하고,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내 공인검사기관 2개 기관과 자전거동호인, 일반시민이 참여한 수차례의 안전시험을 통해 보완을 거듭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지하철역 등 총43개 자전거 보관소에 576개 거치대, 자전거 400대〉

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 이용요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자전거 보관소는 총43개소다. 여의도에 KBS를 비롯해 LG트윈타워 등 25개소, 상암동 마포구청앞 등 18개소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교차로에 마련해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576개의 거치대와 키오스크, 받침대, CCTV로 구성돼 있으며 총400대의 자전거가 운영된다.

키오스크는 자전거 보관소 전체를 제어하면서 원격감시(CCTV)와 결제(휴대폰/신용카드)기능, 그리고 편의(회원카드 등록/이용정보 제공/자동 업그레이드 등)기능 등을 담당한다.

거치대는 자전거를 인식하여 잠금/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전력선통신(PLC)을 이용한 자전거 배터리 충전 기능, 도난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CCTV는 실시간으로 대여상황과 보관소 용량 부하 상태를 파악하여 자전거의 고른 배분이 유지되도록 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와 함께 도난을 예방하고 보관소 고장 등 문제발생시 순회차량에게 즉시 지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했다.

자전거 받침대는 별도의 기초공사 필요 없이 설치 및 증설·이설 가능한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의 사양을 기본 바탕으로 서울시의 보도여건을 고려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거치방향 조정(45도, 60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시 가로수나 기존 시설물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용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증설하거나 축소조정이 쉽도록 했다.

특히 상암DMC DMC홍보관앞, 월드컵3단지 후문, 2개 자전거 보관소에는 태양광셀터를 시범 설치해 친환경 태양광 전원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셀터 벽면을 활용한 각종 광고유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자전거 운영, 유지보수 등 공공자전거시스템 관리하는 관제운영센터〉

상암월드컵경기장 앞에는 서울시 전역의 공공자전거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이 구동되는 운영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와 유지보수센터도 함께 설치됐다.

CCTV를 이용한 영상관제 기능뿐만 아니라 실시간 자전거보관소 상황 파악을 통한 운영 통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다.또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유지보수차량을 이용하여 자전거 쏠림현상 발생 시 재배치 업무 및 고장 수리 업무를 수행한다.



키오스크



거치대



태양광쉘터 스테이션

〈365일 이용가능,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운영〉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운영된다.

공공자전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회원제를 이용 하면 편리하다. 회원제는 연회원/6개월/월회원/주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 기본요금은 기간에 따라 각각 3만원/1만5천원/5천원/3천원이고, 한번 빌릴 때 1시간까지 무료이며 이후 30분이 넘을 때마다 1천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추가요금은 회원가입시 선택한 결제서비스(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에 따라 후불로 정산된다.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www.bikeseoul.com) 회원가입 후 회원제 서비스 가입 →자전거 보관소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자전거 대여’ 선택 →본인 확인 후 대여번호 발급 →스마트 단말기에 대여버튼 선택 후 대여번호 입력 →거치대와 분리된 자전거 이용 →이용 후 인근 거치대에 자전거를 반납하면 된다.

비회원은 자전거 보관소 키오스크에서 1일 이용권을 구입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본요금은 1천원이며, 회원제와 마찬가지로 1시간 이후 30분이 넘을 때마다 1천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시스템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회원가입자에 한해서 1시간 무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원가입자는 안정화 기간동안 기본요금없이 1회 1시간까지 무료이용 할 수 있고, 1시간 초과시 30분당 1천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1회 1시간을 넘지 않으면 몇 번을 이용해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이용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해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1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공공자전거 오픈행사〉

서울시는 31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공공자전거 시범사업 오픈행사를 갖는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마포, 영등포구 구청장, 시민 등 300명이 참석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날 직접 공공자전거를 타고 여의대로 자전거길에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까지 약 1km를 시승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담당: 보행자전거과(02-3707-8338) | 등록일 : 2010.10.31)

[부산광역시] 부산시, 끊어진 해안 이어 경관전망 완성한다!

-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추진
- 부산시, 2013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 규모로 기장군 삼성대에서 강서구 가덕도까지 10개 자치구·군 해안선 306.2km에 조망거점 및 조망지점 46개소를 연결하는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추진
- 국토해양부의 ‘동서남해 해안권 해안경관 개선시범사업’ 공모사업 선정(10.19)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는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발주(12월) 및 2011년부터 사업 착공
- 끊어진 지역 해안을 연결, 잊혀지고 사라진 해안을 찾아내는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으로, 도시 인프라와 연계 국내외 관광객을 매료시키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

부산시가 끊어진 해안을 연결하고 조망공간을 설치, 아름다운 부산의 해안 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해양부의 ‘동서남해 해안권 해안경관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부산시가 지난 10월 20일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동서남해 해안권 해안경관개선 시범사업’은 동서남해안의 우수한 해안경관 자원을 발굴하여 이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전망공간, 썸지공원, 가로시설물 등 조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번사업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국·시비 각 50%)을 투입, 지역 해안에 인접한 10개 자치구·군 해안선 306.2km에 조망거점 및 조망지점 46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끊어진 지역 해안을 연결하고, 잊혀지고 사라진 해안을 찾아내어 해안경관 조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도시 부산의 명성에 어울리는 뜻 깊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음식점·숙박시설 등 잘 갖추어진 부산의 도시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 해안경관 조망공간은 기장군 삼성대에서 자성대, 태종대, 물운대를 통과하여 강서구 가덕도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구 ‘달맞이 고갯길’ △부산의 명물 오륙도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남구 ‘신선대’ △옛 대청공원과 대신공원을 포함하는 곳으로 충혼탑, 4.19위령탑, 광복기념관 등 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중구 ‘중앙공원’ △웅장한 낙동강의 일출과 일몰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사하구 ‘다대포’ 등을 중심 조망공간으로 한다.

부산시는 오는 12월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을 발주하고, 2011년부터 사업에 나설 계획으로,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멋진 부산의 해안경관을 재발견하고, 마음껏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담당: 도시경관과 이영배(051-888-8132) | 등록일 : 2010.10.25)

[부산광역시] 부산의 정체성을 살려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공포

- 부산시, 세계도시 부산의 경쟁력 향상과 세계도시 비전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정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과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10.27자로 공포하고, 오는 11.26부터 시행에 들어가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의회 심의·의결(10.14)을 거쳐, 10월 27일자로 공포되고,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세계도시 부산의 경쟁력 향상과 세계도시 비전달성을 위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강화와 더불어, 부산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시행 △브랜드 슬로건의 관리와 사용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조정, 추진실적 평가 기능을 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도시브랜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규정 등이다.

이번 조례의 공포시행에 따라 부산시는 연말까지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 선정과 위원회운영을 위한 운영세칙 등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담당: 비전전략담당관실 정동원(051-888-4324) | 등록일 : 2010.10.26)

[부산광역시] 부산시, KTX 2단계 개통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

- 부산시, 오는 11.1 개통되는 KTX 2단계 개통에 대비하여 분야별 시정종합 대책을 마련
-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할 계획

KTX 2단계 개통으로 부산과 서울간 통행시간이 종전 대비 22분 단축되며, 특히 울산과 경주가 새롭게 KTX권으로 편입됨으로서, 고속철도 중심의 교통관광 등 지역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시는 그 동안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추진상황 점검과 아울러 시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KTX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과제를 발굴·도출하는 등 향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교통분야는 시민교통편의 시설확충과 장래 교통·환경 변화에 미리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역 대중교통환승 편의시설, 부산역 주변 대중교통 안내시스템 확대
-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부산~거제간 버스노선 신설, 관광택시 도입
- 지역항공의 국내선 수요 감축에 대비 국제선 노선 확충,
- 미래 철도환경에 대비 부전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개발

둘째, 지역경제 증 쇼핑서비스 분야는 수도권, 동남권 등 교류활동 증가로 직간접적으로 지

역상권 특히 쇼핑 등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KTX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갈치, 국제시장 등 전통시장 특화발전, 부산역에 유통 및 전통홍보관 설치
- 지역 서비스(의료, 관광 등) R&D 컨설팅 사업 지원으로 서비스업 선진화

셋째, 관광분야는 부산이 가장 우위에 설 분야인 만큼, 관문도시로서 관광수용태세를 새롭게 정비하고, 경쟁력을 갖춘 관광상품을 특화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부산역 주변 종합 환경정비 등 도시이미지 개선, 관광안내소 확충
- 해양관광 등 관광상품 개발(시티투어버스 확대, 신규 관광코스 개발), 지역축제 연계 순환크루즈 운항, 남해안동남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마지막으로, KTX 2단계로 우려되는 분야인 지역의료환자의 수도권 유출 심화에 대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에 대응함과 동시에 역외환자 유입 촉진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전문화 유도 및 지역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엔 마련한 KTX 2단계 개통대비 종합대책의 세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부산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담당: 정책기획담당관 김병권(051-888-2166) | 등록일 : 2010.10.26)

[인천광역시] 송도, 스마트시티로 거듭난다

- 美 시스코와 헤드쿼터(R&D센터) 유치협약 체결

인천 송도가 앞으로 대표적인 스마트시티(SmartCity)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2일(미국 현지시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새너제이) 본사에서 세계 최대 네트워크 시스템 기업인 미국 시스코 시스템스(Cisco Systems)와 송도국제도시내 '글로벌 센터' 설립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송영길 시장과 존 체임버스 회장 등 핵심 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글로벌센터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은 내년 11월까지 3000만달러(약 339억원)를 투자해 120명 규모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고 향후 5년 내 관련 인력을 350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도에 입주하는 글로벌 R&D센터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세우는 최초의 글로벌 본부로, 친환경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 플랫폼 솔루션 개발, 국내 협력회사의 발굴 및 연계,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아시아 진출의 쇼케이스 장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 시스코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울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스코가 개발한 IT인프라·솔루션을 활용해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울 스마트시티로 만드는 한편, 세계적으로도 스마트시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4년 아시안 게임에 고화질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첨단 에너지 기술 등 첨단 IT을 도입해 가치 창출형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또 인천시청, 경제자유구역청, 주민센터 등에 고화질 화상회의 시스템을 Cisco의 지원을 받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열린 대화방, 주민대상으로 영어교육 실시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합의했다.

송 시장은 "이번 실시협약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convenient)하고, 지능적(Intelligent)이며, 효율적(Efficient)인 도시로 개발돼 세계 제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시스코가 투자하는 글로벌 R&D센터를 통해서도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청년일자리 창출,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시스코 협약 주요내용 》

글로벌 R&D센터 설립

-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개발
- 국내 협력회사 발굴 및 연계
- 국내외 U-city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 관련기술 및 사업모델의 해외수출 지원

스마트시티 구축 가이드라인 내용

- 공공목적 위한 정보의 종류, 내용 및 제공방식
- IFEZ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구축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아시안게임, 스마트 주민센터)

- 인천시는 장비, 공간, 운영에 관한 예산 지원
- 시스코는 설계, 기술지원 및 개발비용 담당

* 스마트시티 :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 실시간 교통정보 활용으로 이동거리가 줄고,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IT에 힘입어 거주자 생활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인천광역시 | 등록일 : 2010.10.25)

[광주광역시] 복구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 살고싶은 도시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선진모델 조성
- 1단계 오는 2011년까지 시화문화의집·전시관 등 신축

광주시 복구 시화문화마을에 시화문화의집과 전시관 등이 신축된다.

광주시는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까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주민참여형 선진모델로 추진하는 복구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의 1단계로 2011년까지 91억원을 투입, 신축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획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문화대교 고가 아래 잉여부지에 실개천을 조성해 등산로를 오르는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주변에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구 시화마을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부문에서 전국 1

위를 차지한 시화문화마을 주변을 관광 명소화해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화문화마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웃과 화합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을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와 그림으로 화판을 제작해 주택담장과 아파트 등 벽면을 꾸미고, 쉼터와 조각품 설치, 각 가구마다 문화문패를 제작해 부착했다.

시 산하 공직자 700여명이 현장을 둘러보고, 21일 현재 타 지역에서 1만,1000여명이 현지 견학과 답사를 다녀가는 등 지방자치의 원형과 공동체의 표본으로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광주시 모든 지역이 시화문화마을을 표본 삼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로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와 자치가 만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담당: 종합건설본부(062-613-6720) | 등록일 : 2010.10.24)

[광주광역시] 세계인과 함께 하는 '제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 성료

- 카렌 홀백 CODEX 의장, 주한 미국 대사 등 6개국 외교사절 참석 눈길
- 5일간 40여만명 방문, 직접판매 20억원, MOU 62억원 마케팅 성과

17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김치문화축제가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에는 카렌 홀백 코덱스(CODEX/세계식품규격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등 6개국의 해외 사절이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여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 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배춧값 폭등과 김장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져 축제에는 40여만명의 방문객이 몰려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3일 개막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해외 사절로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 토마스 쿠퍼 주한 스위스 대사, 발데스 페랄타 주한 파라과이 대사, 옌펑란 주한 중국 총영사, 올란드 페날로사 주한 칠레 참사관 등이 대거 참석, 개막식을 빛냈다.

한편, 세계식품계의 최고 권위자인 카렌 홀백 CODEX 의장이 이번 세계김치문화축제를 통해 한국을 방문해 김치세계화의 미래를 밝혀주고, 축제의 세계화에 큰 길을 열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치와 한식 세계화를 위한 광주선언' >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김치와 한식 세계를 위한 광주선언'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예향의 고장 광주에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종합타운을 건립해 발효기술 연구 및 산업화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장관은 "이번 세계김치문화축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발효식품인 김치와 한식 세계화가 더욱 촉진되도록 정부가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배추 저가판매 등 축제를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

100가지 종류의 우리 김치와 세계화 된 김치, 세계의 건강식품 등을 전시하는 ‘김치주제관’은 1년에 한 번, 김치문화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김치 기획 전시로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들이 30분 이상씩 기다려 입장하는 등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특상품 고랭지 배추를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는 ‘배추할인 직거래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려 하루 판매량인 3,000포기가 순식간에 팔리는 진풍경이 5일 내내 지속됐다. 배추 직거래장터 외에 ‘빛고을 김치장터’와 ‘김치 부재료장터’ 등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김치축제를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2001년 국제규격화 된 김치를 세계인의 식품으로 . . . 국제 컨퍼런스〉

23일부터 이틀간 비엔날레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는 국내의 식품 전문가들과 해외의 석학들이 모여 한국 김치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 학술 심포지엄이었다.

고려대학교 우건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일본의 고이치 와타나베(Dr. Koichi Watanabe, 일본) 박사와 퍼듀대학교 칭칭 우 교수(Prof. Ching Ching Wu, 중국), 독일의 홀잡펠(Prof. Wilhelm Heinrich Holzapfel) 교수 등이 해외연사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영남대학교 박용하 교수와 경기대학교 이종훈 교수, 전남대학교 신말식 교수, 조선대학교 장해춘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특히 올해 축제를 통해 처음 한국을 방문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카렌 훌백(Dr. Karen Hulebak, 미국) 의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김치 세계화에 대한 토론을 지켜봤다.

세계김치문화축제 김성훈 추진위원장(전 농림부장관)은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가 김치 연구의 인프라를 국내 학계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대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컨퍼런스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이 김치 산업의 종주국 뿐만 아니라 김치 학술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내가 바로 김치의 달인! 올해의 김치명인 콘테스트 개최〉

국내 음식축제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올해의 김치명인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최고의 김치명인을 가렸다. 26일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8시간동안 전국 각지의 내로라하는 손맛을 가진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올해의 김치 명인으로 박기순(50)씨가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박기순씨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김치세계화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한 ‘김치초밥왕 콘테스트’는 광주에 새로운 음식상품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김치를 이용한 ‘퓨전요리 콘테스트’가 열려 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어린이·외국인도 함께 즐기는 김치 담그기 체험〉

축제 기간 내내 상설 운영된 ‘김치담그기 체험관’은 김치 전문가의 요리법으로 김치 담그기를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김치담그기를 배우고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갈 수 있어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다. ‘팔도김치아카데미’에서는 사전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및 팔도의 김치명인으로부터 손맛을 배우는 특

별한 시간도 진행됐다.

〈현장판매, 온라인 마케팅, MOU 등 총 82억원 마케팅 성과〉

올해 김치축제는 배추 값 폭등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열려 행사장 방문이 구매로 이어져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매출이 늘어나 총 82여억원의 마케팅 성과를 거뒀다.

빛고을 김치장터 등 행사장내 입점업체에서 9억원의 현장판매 수입이 발생하고 온라인 판매에서도 11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특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과 일본 등 5개국 6개사와 62억원(1,100톤) 상당의 수출 MOU를 체결해 광주김치 산업화에도 힘을 실어줬다.

〈김치축제 세계화의 원년, 그 어느 때보다 성공 개최 평가〉

이번 세계김치문화축제는 원래 광주김치문화축제로 개최되던 타이틀을 바꿔 올해를 김치축제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았다. 예년에 비해 외국인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지역 축제로는 보기 드물게 6개국의 공식적인 해외 사절단이 참석하는 등 한국의 대표 식품 김치와 그 김치를 대표하는 김치문화축제에 대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음을 확인했다.

한편,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은 27일 오후4시30분부터 시립민속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지난 5일간의 축제 현장을 담은 영상 파노라마를 시작으로 올해의 김치명인에게 대통령상 시상, 송귀근 행정부시장의 ‘감사의 인사말씀’, 김성훈 추진위원장의 ‘폐막선언’에 이어 오후5시부터 열린 폐막 축하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제 현장을 찾은 40여만명의 방문객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김치명인콘테스트 수상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올해 김치문화축제는 맛과 영양이 풍부해 세계 5대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김치를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김치 세계화의 계기가 됐다” 며, “세계김치문화축제가 최근 문을 연 국내 최대규모의 김치복합테마파크인 ‘광주김치타운’ 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식의 세계화를 선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담당: 관광진흥과(061-613-3640) | 등록일 : 2010.10.27)

[대전광역시] 대전시, 3대.30년 전통업소 발굴·육성 기준 마련

- 대전의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문화상품으로 육성

대전광역시는 관내에서 3대 이상 가업을 잇거나 30년 이상 위생업소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과 찻집 등 전통업소 발굴·육성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관련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대전의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시 인증 전통업소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지원방안에 대한 자문과 함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식품·공중업계 단체장, 언론사, 소비자 모임 대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과정을 거쳐 앞

으로 전통업소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전통업소 선정기준은 3대 또는 1980. 1. 1자 이전 관할 구에 신고등록하고 30년 이상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한 업소로 한정 하면서, 상호(업소명칭) 및 명의(매매) 변경 업소는 전통업소 대상에서 제외하되, 가족간의 명의변경업소는 인정해 주고, 무신고 영업 기간을 제외할 경우 30년 이하업소,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업종과, 퇴폐우려업소에 대하여도 전통업소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전통업소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3대?30년 전통업소 발굴·육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30년 이상 오랜 세월동안 같은 업소를 운영해 온 위생업소 영업주에게 건전한 직업관 확립과 자긍심 고취, 장인정신을 계승·발전 한다는 취지를 살려 해당업소에 시 인증서를 수여함은 물론, 시정백서 등재,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대전만의 독특한 관광 문화상품화로 육성·개발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 담당: 식품안전과 손해석(042-600-5282) | 등록일 : 2010.10.23)

[대전광역시] 대전시, 숲과 꽃의 녹색도시조성 본격 추진

- 내년 원도심을 중심으로 생활권 녹화에 초점

도시를 하나의 숲 개념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된다.

대전광역시(시장 엄홍철)는 시민들이 숲의 도시 푸른대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가로변, 학교 등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60여억원을 투입해 계절별 꽃과 열매가 있는 녹색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계절별 꽃과 열매가 있는 특화거리 조성(6개소)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학교공원화) 8개교 ▲쌈지공원(시민휴식공간) 및 담없애기(6개소) ▲산림청 공모 선정학교 숲 조성(4개교) ▲소외계층 녹색복지숲 조성(3개소) 등 3개 분야 14개 사업(51개소)이다.

계절별 꽃과 열매가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주요 관문인금산길 등 6개소 18km6만 4천㎡의 가로변 녹지대에 꽃과 유실수를 집중 식재하여 대전을 찾는 관광객과 내방객을 대상으로 품격높은 녹색도시 대전의 이미지 개선을 추진한다.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은 동명초 등 8개 학교에 모두 1만 7천㎡의 공원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열린 쉼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며, 학교 숲 조성은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대성고 등 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카이스트 등6개소 1.1km의 담장을 철거하고 1만 7천㎡의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쌈지공원과 근린생활권 경관숲 조성 및 도로변 경관개선 사업으로 가로환경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녹색사업단(복권위원회 복권기금)에서 시행한 ‘2011년 녹색복지 증진 지원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녹색복지 공간 조성사업은 2010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중구 은혜요양원, 서구 후생학원, 대덕 성우보육원등 3곳에 녹색자금 4억5천만원을 투입해

복지시설 유휴 공간 1만 3천㎡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녹색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심은 나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관을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질적 고도화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가로수 생육 관리, 밀생목 이식, 일반녹지대 사후관리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으며, 나무은행과 나무병원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5기 약속사업인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2014년까지 내실있게 추진 도심 녹지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대전을 하나의 거대한 『숲의 개념』으로 재창출하고 세종시 배후도시로서 품격높은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담당: 푸른도시과 박관식(042-600-5543) | 등록일 : 2010.10.28)

[울산광역시] 'KTX 울산역 진입도로' 개통

- 10월 28일 개통식 ... 4.09km 5개 노선 왕복 4~6 차선

경부고속철도(KTX) 울산역 진입도로가 개통된다.

울산시는 10월 28일 KTX 울산역사 개통식에 앞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앞 도로현장에서 'KTX 울산역 진입도로 개통식'을 개최한다.

'KTX 울산역 진입도로'는 5개 노선(외부 2개, 내부 3개), 총 길이 4.09km, 왕복, 4~6차선으로 개설됐다. '외부노선'을 보면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역세권 ~국도24호선'은 길이 1.14km, 폭 14~40m,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역세권 ~구국도 24호선'은 길이 1.05km, 폭 8~35m 등으로 개설됐다. 또한 외부노선과 연결되는 내부노선은 광로 3-9호선(길이 0.91km, 폭 40m) 등 3개 노선으로 총 길이 1.9km, 폭 25~40m 등으로 개설됐다.

앞서 울산시는 KTX 울산역 개통과 관련, 지난 2009년 12월 언양보람병원 앞 도로를 폭 7m에서 30m로 확장하고 2010년 4월 북부순환도로 ~제2다운초교~ 구영간 도로개설을 완료했다.

또한 길천산업단지 진입도로(길천 ~ 교동, 길이 2.75km), 울리 ~ 삼동간(길이 7.4km)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KTX 울산역 개통에 따른 교통유발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앞으로 역사 전면에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와 전시·문화 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 '울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담당: 공보관실 김성진(052-229-4391) | 등록일 : 2010.10.28)

[경기도] 동북아 최대 국제기구 NEAR 총회 경기도에서 열린다

- 5개국 40개 자치단체에서 150명 참석, 동북아 고위공무원 대거 참석

- 동북아의 경제협력 제도화 및 기후변화, 문화교류, 지자체 교류 등 논의예정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등 동북아시아 6개국 6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는 동북아 최대 국제기구인 동북아자치단체연합(North Asia Regional

Government, 이하 NEAR)의 8번째 총회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8일 개막한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96년 출범한 이래 14년 동안 회원단체간 경제통상, 문화, 환경,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등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기구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EU 및 북미지역(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했으며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GDP의 20%, 세계 인구의 24%, 세계 무역의 35%, 세계 외환 보유고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경제에서 동북아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NEAR 총회가 동북아 통합을 위한 제도적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흑룡강성 부성장, 일본의 시마네현 부지사, 러시아의 튀바공화국 대통령, 몽골의 움느고비 도지사 등 5개국 40개 단체 15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NEAR 총회는 '협력을 통한 동북아의 공동 번영(Shared Prosperity Through Cooperation)'을 주제로 환영리셉션, 개막식, 공식만찬과 회의세션, 경기도 팸투어(2개 코스) 순서로 진행된다.

NEAR 총회의 개막식은 외교통상부 신각수 차관의 축하인사와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대총령자문국가결정력강화위원회 위원인 안충영 교수의 "동북아에서 초국경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초청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총회의 의장을 맡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 갈등이나 이데올로기 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발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동북아자치연합(NEAR)이 미래지향적이고 내실있는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제도적인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표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이어 진행되는 회의세션은 외교통상부 조재천 문화예술과장이 '한국의 문화외교, 동북아를 잇는 다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으로 시작으로 각 회원자치단체의 동북아의 교류협력, 경제통합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다각도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전에 배포된 대표연설문을 통해 일본 토마야현의 관광지역진흥국 이가라시 노부오 국장은 NEAR사무국 홈페이지에 회원단체의 뉴스와 웹사이트 소개, 회원단체간 여행정보 공유, 여행사제휴 등에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광주광역시 회원 도시간 해외투자 동향과 수출입기업들의 정보 교환 등을, 고비사막에 위치한 몽골의 움느고비아이막 대표는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함께 기후변화와 사막화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러시아의 알타이주 대표는 한국, 일본과의 교류현황 설명과 함께 알타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제약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660MW급 복수식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NEAR 대표단에게 고도의 발전된 경기도의 산업적 면모와 아름다운 문화 역사를 알려주고자 29일 산업시찰팀과 역사탐방팀 2개조로 나눠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시찰팀은 삼성전자와 파스퇴르연구소, 과천국립과학관을 시찰할 계획이며 역사탐방팀은 수원화성, 수원화성박물관과 한국민속촌을 시찰할 계획이다.

(경기도, 담당: 경제정책과 (031-8008-2191) | 등록일 : 2010.10.26)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 대상별맞춤 숲체험프로그램 인기

- 경기도·경기농림진흥재단 아토피어린이·독거노인 등 대상별 맞춤 숲 체험프로그램 풍성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숲체험 프로그램이 10월말 현재 536회, 9,0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실시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은 아토피 어린이와 가족,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유형 맞춤 숲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아토피 치유도 숲에서 하자!〉

아토피 증상을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아토피 숲 캠프\’를 초등학교 50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인산도립공원 다목적캠핑장에서 10월 30~31일 1박2일 일정으로 연다.

이번 캠프는 지난 10월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아토피 어린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토피 질환이 올바른 이해와 관리’에 대해 생활관리법이나 부모의 역할, 심리교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시키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토피 캠프에 참여한 송선자(남양주, 41세)씨는 “1박2일 일정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토피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간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아토피 질환은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숲의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아토피 질환의 호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잣나무가 피톤치드를 많이 분비하는데, 가평은 잣의 한해 생산량은 경기도 잣 생산량의 61%, 전국 생산량으로는 33%나 차지하며, 연인산도립공원에도 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토피 어린이에게는 숲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과 잣 나무숲의 피톤치드를 활용한 자연놀이, 아토피 치유를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 숲속 미술 심리치료, 식습관 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위한 프로그램 풍성〉

또한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중 운영하는 숲 체험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여, 숲을 찾은 이들에게 생활에 활력을 찾아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편부모, 저소득계층 아이들, 장애우, 독거노인 등 정서적 휴식과 정(情)이 필요한 사회 소외계층이 참가할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눈길을 끌고 있다.

10월 만해도 의정부 노인복지회관 독거노인 83명이 다녀갔으며, 다양한 숲 체험을 통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어울림으로써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노인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은 요양과 치유기능에 중점을 뒀, 활기찬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숲 체험에 참여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과 이해진 팀장은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산을 찾기로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자연활동도 하고 전문 숲체험 프로그램으로 삶의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아 매우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인산은 2005년 9월에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2010년 1월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용추계곡과 같은 훌륭한 자연경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공원이다.

연인산 탐방안내소에는 용추폭포 영상코너를 비롯하여, 연인산의 어제와 오늘, 연인산에 서식하는 우리 꽃, 우리나라의 자료 등 종합안내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 탐방안내원의 친절한 안내와 자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자연관찰로(1km)또한 숲 해설사들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이색체험공간이다.

연인산 숲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면, 경기농림진흥재단 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031-580-9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담당: 경기농림진흥재단(031-250-2772) | 등록일 : 2010.10.28)

[경기도] 경부고속철도(KTX) 수원역 운행

- 경기도 건의 한국철도공사에서 수용 KTX 수원역 정차 4년 앞당겨

- 11.1(월)부터 1일 8회(상행 4, 하행 4) 정차, 기념행사 가져

경기도는 경부 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128.5.5km)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서울~대전구간 수원역에 경부선을 운행하는 KTX 열차가 오는 11.1일(월) 08:52분 부산행 602호 열차를 시작으로 1일 8회 (상행4회, 하행8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KTX 수원역 정차를 축하하기 위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남경필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인사가 첫 열차 도착시간에 맞춰 수원역을 방문하여 시민대화 및 KTX 승무원을 격려하고 첫 이용객(안산시 단원구 거주 김혜림, 여)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축하할 계획이다

KTX 수원역 정차는 당초 한국철도공사에서 수도권 KTX(수서-평택)시설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부터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3 경기도에서 KTX 수원역 정차를 건의한 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직접 전화통화하는 등 노력으로 4년을 앞당긴 것이다.

그 동안 수원, 용인, 안산, 화성 등 경기 서남부지역 주민들이 수원역에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이용시 수원에서 부산간 약 4시간 25분 내지 5시간 7분이 소요되고, 시간단축을 위해 KTX를 이용시 천안·아산역 또는 대전역에서 환승 및 환승대기로 인한 불편을 겪어 왔으나 금번에 KTX 수원역 정차로 기존 새마을호 이용 대전역 환승시보다 최대 40여분이 단축되어 수원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한편, 수도권 KTX(수서-평택)건설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 말부터는 평택 지제역까지 KTX 전용선로 이용시 부산까지 2시간 17분이 소요되어 23분 추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는 열차 이용승객 증가 추세에 맞춰 KTX 열차 운행횟수가 증편 되도록 하는 한편, 화성 동탄역, 평택 지제역도 2014년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철도이용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담당: GTX추진기획과 (031-8008-3734) | 등록일 : 2010.10.31)

[강원도] 중국 메이저 여행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강원도는 최대 관광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중국 최대 메이저 업체들과 손잡고 본격적인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도는 오는 10월 27일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최갑열)을 대표로 한 홍보관측단을 파견하여 상해지역의 3대 메이저 업체(금강여행사, C-trip, 상해 중국국제여행사)와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한다.

또, 오는 10월 29일에는 이광재 도지사가 직접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역시 북경지역 최대 여행업체인 청년여행사, 중국국제여행사, 화평여행사 등 3개 업체와 업무협력 협정(MOU)을 체결한다.

이번에 체결하는 MOU에는 ① 현지 여행업체에서는 강원도내에 최소한 1박 이상 숙박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② 강원도는 상품개발과 모객능력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③ 상품개발 답사 팸투어 실시 ④ 상품개발 자료 및 정보제공과 시장 동향 정보교류 등 4개항에 합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MOU 내용에는 양양~북경, 양양~상해간 전세기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양양공항 전세기 운항을 위한 기초 토대를 확실히 마련한 계획이다.

또한, 이번 MOU 체결업체와 별도의 상품개발 간담회를 갖고 중국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을단풍(설악산), 겨울 눈스키(펜스키 페스티벌)과 수학여행 교류상품 등 관광상품 개발을 협의하여 올 연말부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중국의 세계 관광객 송출규모는 4,766만명이며 이중 한국 방문 관광객은 134만명으로 전체 송출인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금년 9월까지 방문인원은 1,43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원도 방문은 지난해 약 217천명(도 전체 방문 외국인의 17%)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한국 전체 성장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달 수학여행상품, 노인단체, 인센티브 단체, 한류, FIT(개별여행) 등 5대 전략 관광상품 육성과 북경지역 「관광사무소」 신설,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중국시장 관광객 유치확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강원도(최갑열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에서는 향후 중국시장 관광객을 잡기 위해 맞춤형 상품 개발, 전략적 홍보마케팅과 손님맞이 태세를 갖추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 담당: 관광마케팅사업본부 (033-249-2862) | 등록일 : 2010.10.27)

[강원도] 강원도, 동해안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키로

강원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13억 등 총 227억원을 들여, 고성 청간정에서 삼척 죽서루를 잇는 “관동 8경을 따라 걷는 녹색 경관길” 을 조성한다.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도가 신청한 동해안 경관관광 조성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창조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관동8경 주변의 연결로(2.5Km), 산책 데크(2.9Km), 보행로 (0.3Km) 등 탐방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와 함께 창조산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 문화·건축·디자인·출판·예술 등 창조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산업

관동8경은, 통천 총석정, 고성(북 강원) 삼일포, 고성 청간정, 양양 의상대,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울진 월송정, 등 동해안의 빼어난 경관 8곳을 이르는 말로 도내에는 4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주의 도 관광진흥과장은 “도에서 작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자동차 이용관광객 중심의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 과, 이번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어우러지면, 차량과 도보여행을 병행한 신 개념의 체험 관광코스도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강원도, 담당: 관광진흥과 (033-249-3386) | 등록일 : 2010.10.25)

[충청북도] 21C 고속철도 시대의 중심메카 오송역 개통

- 대한민국의 중심 『희망의 오송시대』 개막

21C 고속철도 시대의 중심메카로 부상할 국내 유일의 경부선·호남선 분기역인 오송역이 2010. 11. 1일 개통되어 대한민국의 중심 『희망의 오송시대』가 열린다.

고속철도 오송역은 지난 2008. 6. 25일 경부선과 2009. 5. 22일 호남선의 착공으로 10. 28 준공식을 개최하여 11. 1일 개통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대 생활권을 이루게 됐다.

오송역의 위상은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관문역 기능 수행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의료 6개 국책기관이 이전되는 오송 생명과학단지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대변되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으로 주변 발전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오송·제천·옥천의 BT와 오창·충주·진천의 IT, 증평·음성의 GT 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의 입주 수요증가와 고용유발 효과 상승으로 산업 전 부문에 파급되어 우리 도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철도망의 X축을 기반으로 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켜 그 파급효과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북도는 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에 대비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주~오송역~의료단지~서울을 운행하는 직행시외버스를 11월 1일부터 1일 11회 운행토록 하였으며 대전~오송역~오창과학단지~청주공항을 운행하는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내버스도 11월 1일부터 청주(가정터미널)~오송역 노선을 1일 28회 운행토록 하였으며 향후 수송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대중교통 연계대책을 마련했다.

오송역 연계 도로망은 오송역~세종시간 BRT도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건설 중에 있고 오송~청주시 연결도로를 6차로로 확장 시공할 계획이며, 철도망에 있어서도 오송~목포간 호남고속철도가 건설 중에 있으며 충북선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교통수요의 변화에 따라 정차 횟수를 증회시켜 나가고 장기적으로 계룡~대전~오송~청주공항간을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망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

오송역과 연계된 도로·철도망 정비·확충으로 수도권 남부권, 강원도 서·남부권, 경북·전북 북부권과 충청권 등의 1,200만명 주민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북도, 담당: 공보관실(043-220-2076) | 등록일 : 2010.10.28)

[충청북도] 올 3/4분기 충북지역 관광객 대폭 증가

- 1,879만2천명 방문, 지난해 대비 18.7% ↑

충청북도는 올 3분기에 도내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총 1,879만2천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96만6천명이 증가(18.7%)한 것으로 무료관광지 1,320만9천명(17.7% ↑), 유료관광지 558만3천명(21.3% ↑)이며, 그 중 유료관광지에서만 집계되는 외국인관광객은 15만2천명(12.6% ↑)이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입장객 136만 명은 일시적 행사 참여자로 관광객에 산입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충북을 찾은 관광객 수 증가는 괄목할만하다.

이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 100대 사업의 적극추진, 관광성수기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관광홍보와 판촉활동, 각종 축제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전국단위 메가이벤트의 성공적 개최,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을 찾은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유료관광지에서 집계되는 관광객이 대폭 증가되었고, 제천지역 관광객이 371만5천명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한 것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시군으로는 제천 371만5천명, 단양306만9천명, 영동 260만1천명, 청원 195만1천명, 충주 171만7천명 순이고, 무료관광지 중 선호관광지로는 피서철 청정계곡을 많이 찾는 영동의 물한계곡 184만명, 옥천의 금강유원지 67만2천명, 제천의 의림지 52만3천명, 단양의 구담봉 41만9천명, 옥천의 서화천 38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관광지 중 선호관광지로는 단양의 대명콘도 56만8천명, 단양팔경(옥순봉, 도담삼봉) 31만명, 충주의 수안보 온천지구 23만명, 단양의 고수동굴 18만7천명, 청원의 상수허브랜드 18만5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선호 관광지로는 단양의 대명콘도 6만1천명, 단양팔경 2만명, 다리안관광지 1만7천명, 소선암자연휴양림 1만2천명, 청원의 상수허브랜드 1만2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금년 3/4분기까지 총 3,899만8천명(목표 5천만명 78%)의 관광객이 충북을 다녀간 만큼,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의 알찬 마무리, 충북의 겨울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 홍보 등 관광객유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으로 대충청방문의 해인 올 한해 관광객 유치 목표인 5천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북도, 담당: 공보관실(043-220-2076) | 등록일 : 2010.10.26)

[충청북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결과 공식 발표

- 성공적 행사와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 도정 실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가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끝난 엑스포 행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

조직위는 발표를 통해 엑스포 총 관람객수는 당초 목표 105만명 대비 30%를 초과 달성한 1,360,218명이며 이중 유료 관람객은 682,716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50.2%, 무료 관람객은 677,502명으로 49.8%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관람객은 유·무료를 합해 50,897명이며 단체관람은 1,982단체, 182,268명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무료관람객 입장현황은 기초수급자가 전체 무료입장객중 24.5%를 차지한 165,988명이며 국가유공자가 22.5%인 152,43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동반자포함),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입장객이 487,802명에 달해 성공적인 행사와 더불어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 의 도정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장이 된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수입액은 6,528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9.4%를 거두었으며 이중 입장권 판매수익은 4,839백만원, 시설임대는 324백만원이며, 특히 휘장사업수익은 1,365백만원으로 당초 목표액(910백만원)대비 150%를 수익을 거두었다.

조직위는 연말까지 성과평가 실시와 백서 제작, 사후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며 엑스포장 시설 철거는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담당: 공보관실(043-220-2076) | 등록일 : 2010.10.25)

[충청남도] 서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공모선정

- 보령시, 태안군, 당진군 공모사업 확정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충남에서는 보령시, 태안군, 당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오천항 주변에 「팔색보령수필」 조망공간 조성사업 ▲태안군은 소원면 의항리에 신비한 개목마을 조망공간 조성사업 ▲당진군은 대호방조제~삼교호방조제 구간 조망공간 조성사업을 금년부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지자체별로 보전 및 관광가치를 지니고 있는 해안경관 자원을 발굴하여 초광역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자연경관자원 및 농산어촌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 조형물, 탐방로,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시·군에게는 금년부터 설계비와 일부 시급한 공사비를 국비 2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중간평가를 통하여 총사업비 기준 국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의 해안권에 접한 지자체(75시군)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된 60여건에 대하여 1, 2차의 심사과정을 거쳐 총 12건의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을 선정했다.

(충청남도, 담당: 균형발전담당관실 윤여권(042-220-3801) | 등록일 : 2010.10.25)

[충청남도] 천수만을 국제관광·휴양거점으로 조성 박차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29일 오후 3시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충남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21세기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인 삶의 질 향상과 녹색관광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레저·휴양 등 관광수요에 맞춰 천혜의 관광자원 보고인 천수만 권역에 기 추진중인 태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서산바이오웰빙특구, 관광지 7개소, 관광자원 개발계획 10개소, 다양한 관광자원 등을 종합 조정, 연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동기술공사 박찬일 전무이사는 “천수만 권역은 태안, 보령, 서산, 홍성 등 4개 시군이 접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와 가까운 지역으로서 충남도와 서해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천수만 지역으로의 접근성 문제, 다양한 관광기능의 혼재, 계절적 관광성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천수만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관광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양대학교 지진호 교수는 “동북아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1995년도에 41백만명으로 전세계 관광객의 7.8%였으나 2010년 104백만명으로 10.5%, 2020년엔 216백만명인 14.4%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천수만 지역 역시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고유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일종합기술공사 이대구 부사장 역시 “천수만 지역은 관광레저형기업도시와 웰빙특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중”이라면서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지, 서해안 관광의 거점 기능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천수만 관광 브랜드화 등의 추진 전략에 중점을 뒀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남도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이 배석하고,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연구실장의 주제로 배재대 박근수 교수, 청양대학 최영문 교수, 그리고 충남도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 사업계획, 관광자원의 국내외 연계방안, 토지이용체계, 교통동선체계, 유치시설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남도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천수만 권역을 국제적인 관광·휴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협의내용 등을 분석하여 내실있고 실행력인 담보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충청남도, 담당: 균형발전담당관실 전병길(042-220-3802) | 등록일 : 2010.10.29)

[전라남도] 남해안선벨트 사업 추진 탄력

-고흥 구룡마을 등 전남 7곳 해안권 조망사업 선정 전국 최다

전남 고흥 구룡마을과 완도·강진 등 남해안 일대 7곳이 전국 해안권 조망사업 지구로 선정돼 오는 2013년까지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개선 조성 사업이 펼쳐져 남해안 선벨트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가 공모한 전국 해안권 조망사업 시범사업에 전국 17곳 중 전남지역 7곳이 포함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해안권 조망사업은 해안경관 보전 및 경관 개선을 통해 발전이 기대되는 전국 해안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공모에 들어가 75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아 관련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평가를 마치고 최종 확정됐다.

동해·서해·남해안의 고유한 경관을 보전하고 조망점을 형성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프랑스 남부 해안마을처럼 고품격 해안마을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안경관 보전사업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엄두를 못냈으나 ‘남해안선벨트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전남지역 시범사업 대상지는 해안마을 미관사업으로 고흥 구룡마을이 선정됐고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 사업으로 완도군과 강진군이 확정됐으며 광역형으로 광양, 여수, 순천, 고흥, 보성군이 추가로 확정됐다.

확정된 사업지구는 1곳당 약 35억원 규모를 투입해 전망대, 웰빙공원, 주차장, 해변산책로, 갈대밭 생태산책로, 해안데크 등이 설치되고 경관 저해시설과 갯벌 훼손지가 정비되며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3년까지 모두 완공하게 된다.

이점관 전남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올해부터 남해안선벨트 사업 일환으로 시범 추진되는 ‘경관개선 조성 사업’이 우수한 해안경관자원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 탐방을 적극 유도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미래전략기획단(061-286-2830) | 등록일 : 2010.10.26)

[경상남도] 영남권 시도교육청과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성공 손잡다

- 경남도, 영남권 5개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 28일 오전 11시30분 도청 2층 도정회의실

영남권 5개 시도교육청이 대장경 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영남지역 20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최고의 문화축전과 팔만대장경의 우수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30분 도청 2층 도정회의실에서 경남교육청,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울산교육청,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남도 강병기 정무부지사와 영남권 5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경남도 및 관련 시·도교육청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식은 경남도가 아시아 최고 문화축전을 지향하는 ‘2011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초중고 3,174개교 196만여 명의 학생의 교육을 총괄하는 영남권 5개 시·도교육청과 손을 잡음에 따라 성공적인 축전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축전은 대한민국 최고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국내·외 홍보는 물론 국격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 훌륭한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한편 역사문화 축전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

경남도와 영남권 5개 시·도 교육청은 또 이번 대장경 문화축전이 열리는 합천 해인사와 주행사장의 각종 역사문화 인프라와 주요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의견을 공유, 상호 교육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해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조직위로서는 관람객 유치에 청신호가 기대된다.

이날 6개 기관은 협약식에서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계기로 영남권 교육기관이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 교육·문화·정보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대장경 문화축전에 동참함으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1년 수학여행 및 현장 체험학습 계획 반영 ▲산하 각급학교 축전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와 문화탐방 학습 지원 ▲합천 해인사와 대장경 문화축전의 산교육장 활용 ▲지역발전 도모 등 4개 항의 합의사항을 협약한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은 2011년 9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45일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주행사장, 해인사와 창원 컨벤션센터 등에서 154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열린다.

경남도 강병기 부지사는 “대장경 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에 영남권 교육기관들이 쾌히 동참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학생들에게 대장경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보고 느끼고 담아 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고 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남도, 담당: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인재영(055-211-6284) | 등록일 : 2010.10.27)

[제주특별자치도] 신비의 사라오름 산정호수 11월 1일부터 개방

- 데크시설, 전망대 등 정비 완료 ... 빼어난 경관 새 명소 기대

빼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한라산 사라오름이 오는 11월 1일부터 탐방객들에게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본부장 오익철)에서는 한라산 사라오름 전망대 조성사업이 10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사라오름을 개방,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지질공원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사업비 4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사라오름 진입로에 목재데크시설 387m, 보호책 247m과 전망대 시설을 완료하여 이곳을 찾는 탐방객의 아름다운 비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하였다.

사라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를 따라 백록담쪽으로 약 6km 올라간 지점에 위치

한 오름으로, 도내 산정화구호를 가진 오름 중 제일 높은 표고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둘레가 2,481m, 면적은 441천㎡로 정상에 세숫대야처럼 생긴 분화구가 있으며, 서귀포시 동쪽 부분을 한 눈에 바로 볼 수 있다.

분화구의 면적은 5,000㎡ 정도로 넓은 편이고 물이 고여 있다가 가뭄에는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물이 많이 고여 있을 때에는 신비롭게 보이는 산정호수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이번 사라오름 전망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탐방객 분산으로 정상 정복 위주의 탐방행태 개선과 고산지역 식생 보호 등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단풍철을 맞이하여 사진촬영 등으로 인한 탐방객들이 하산시간이 늦어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11월 1일부터 동절기로 접어들어 한라산 입산 통제시간이 변경된다.

어리목코스와 영실코스는 탐방로 입구에서 낮 12시부터 입산을 통제하며, 또한 윗세오름부터 남벽구간까지 가려는 사람은 윗세오름 통제소에 오후 1시 까지 도착해야 올라갈 수 있다.

성판악코스는 진달래밭통제소에서, 관음사코스는 삼각봉대피소에서 낮 12시부터 입산을 통제한다. 돈내코코스는 탐방로 입구에서 오전 10시부터 입산을 통제하며, 어승생악코스는 오후 4시까지만 입산이 가능하다. 이 같은 탐방 통제시간은 하절기와 비교해 코스별로 최저 30분에서 1시간 앞당겨진 것이다.

계절이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고 있어 한라산은 예기치 않은 날씨로 인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탐방로가 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산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위에 대비한 준비물(여벌옷, 비옷 등)을 철저히 준비해 안전한 산행을 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064-710-7855) | 등록일 : 2010.10.25)

[제주특별자치도] 용수리 해안변 친환경 올레길로 탈바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훼손된 연안을 보호하고 연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연안보존사업을 한경면 용수리 속칭 ‘생이기정’ 해안변을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올레길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은 ‘제2차 연안정비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총사업비 27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10월 중순 준공으로, 해안 산책로(L=700m)를 아름답게 정비하였다.

용수리 속칭 ‘생이기정’ 해안변은 드넓은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서, 얇은 능선을 따라 오르고 내리고 해안선을 따라 굽이굽이 돌며, 용수리에서 고산 당산봉까지 올레길을 걷다보면 자연 경관이 뛰어난 수월봉과 차귀도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이다. 해안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인기 등 유명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번 시행한 ‘용수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제주의 뛰어난 운치를 자아낼 수 있는 현무암 디딤돌과 천연잔디를 혼합(7:3)으로 시설하였고, 도민 및 올레꾼들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해안도

로 형태로 절·성토 없는 기존의 해안변을 유지하기 위한 현지 사석 등을 이용하였으며,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한 벤치 등을 설치하는 등 세심하게 설계 및 시공하였다.

‘용수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으로써, 용수리 올레길(12코스)를 찾는 많은 관광객 및 도민들이 자연과 함께 쉬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해양자원과(064-710-3221) | 등록일 : 2010.10.27)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제주가 국제크루즈 메카항으로 자리 잡아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3월 27일 일본국적 국제크루즈선 “퍼시픽 비너스호”(26,561톤)가 제주항에 첫 입항을 시작으로 10월 18일 현재까지 총 9척-48회/ 54,840명이 제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제크루즈선 방문계획은 9척 49회로, 앞으로 10월29일까지 1척이 입항 예정에 있으며, 계획대로 입항 할 경우 올해 크루즈선 제주항 입항은 마무리 된다.

지금까지 크루즈 선박별 입항실적을 보면 퍼시픽비너스호(26,561톤/ 일본-제주-일본 항로) 1회 342명, 암스테르담호(60,874톤/중국-제주-일본 항로) 1회 1,036명, 리전드호(69,130톤/상하이-제주-부산 항로) 3회 5,057명, 코스타 크라시카호(52,926톤/중국-제주-일본 항로) 15회 19,922명, 코스타로만티카호(53,049톤/중국-제주-일본 항로) 21회 26,345명, 니폰마루(22,472톤/일본-제주-일본 항로) 1회 379명, 실버새도우(28,258톤/인천-제주-일본 항로) 1회 259명, 아스카2호(50,142톤/부산-제주-일본) 1회 705명으로 총 48회/ 54,840명이 제주를 방문하였다.

특히 중국관광객이 54,840명중 73.6%인 40,342명으로 점차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10년도 10월 18일 현재, 크루즈선 입항실적은 전년도 37회 38,147명 보다 11회 16,693명(69.5%증가)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올해 예정대로 크루즈선 입항이 마무리되면 입항횟수는 37회에서 49회로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입항하는 크루즈선도 대형선박으로 교체투입(2만톤급→5만톤급)되어 5만5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2011년에는 국제크루즈선이 2010. 10월말 현재 55회에 걸쳐 제주에 기항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외항개발이 완료되고 국제크루즈 터미널이 완공되는 2012년 이후에는 연간 100회 / 15만 명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주관광에 따른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에서는 향후 국제크루즈선사 및 중앙대리점 방문 등 Positive Port-Sail을 통한 크루즈 적극 유치 및 2011년 8월 제주외항 준공에 맞추어 제주항 팜플렛(크루즈부두 중심) 제작배포, 세계자연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 등을 적극 홍보하여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항만개발과(064-710-6358) | 등록일 : 2010.10.27)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아프리카(케냐) 외래객 방문 신기록 수립

아프리카 여행의 대표적 목적지인 케냐는 금년 8월말까지 701,691명의 외래객이 케냐를 방문하였으며, 금년이 외래객 방문 신기록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케냐의 외래객은 2007년 피크를 이룬 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폭력사태로 입국자가 급감하였으나, 금년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관광외화 수입도 상반기에만 \$606.3에 이르러, 2007년도의 3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케냐는 외래객의 증가가 공격적인 마케팅 결과라며, 케냐의 전통적인 주력시장인 서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케냐를 방문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아웃바운드 실적에서도 나타나는데, 미국 상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아프리카를 방문한 미국인은 21만6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6.5%가 증가하였음. 이 수치는 금년 6월말까지의 미국인 아웃바운드가 전체적으로 4.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인 것임.

(한국관광공사, 담당: 김옥신(rosablu@mail.knto.or.kr) | 등록일 : 2010.10. 22)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초강세 호주달러로 관광업 울상

호주 달러의 초강세로 인바운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 14일(목) 오전 호주달러는 미화 99.70센트에 육박, 2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 외환시장에서 며칠 안에 미화와 동등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같은 호주 달러 초강세로 호주인들의 해외 여행은 붐을 이루고 있지만 외국인의 호주 여행(인바운드) 관련 산업은 울상임. 이미 상당수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휴업이나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30년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숨 짓고 있음.

퍼스에서 영국과 아일랜드인 백패커를 상대로 15년 간 체험 여행 업체 이지라이더(Easyrider)를 운영해 온 크리스 크로닌도 고객 급감으로 이번 주말 폐업을 결정한 상태. 16명을 태웠던 버스에 6-8명으로 이용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 그의 폐업은 관련 운수업과 숙박업, 내륙 오지의 거래처가 타격을 받는 것을 의미함.

외국인 여행자들로 북적이던 시드니 다링하버 상권도 썰렁해진 것으로 알려짐. 호주를 장기 간 여행하는 뉴질랜드 방문자들은 종전보다 알뜰해진 지갑을 의식해 씹씹이를 자제하고 있음. 키워 달러에 비해 호주 달러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올랐기 때문. 업계는 뉴질랜드 관광객들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 호주 관광청이 마케팅에 중점을 둔 미국 시장도 고환율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음. 미국의 경기 침체에 호주 달러 강세의 이중고가 겹쳤기 때문임.

반면 호주 달러 강세에 맞춰 해외 여행을 떠나는 호주인이 급증 추세임. 온라인 여행사 웹젯(Webjet)는 “지난 몇 주간 미국과 아시아행 출국이 30% 꺾였었다”고 밝힘. 인터넷 여행사 익스피디아(Expedia) 호주와 뉴질랜드의 루이스 브롬튼 대표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미국행 부킹이 200% 급증했다”면서 “파리, 바르셀로나, 체코 등으로 연말 휴가를 떠나는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힘.

(한국관광공사, 담당: 김옥신(rosablu@mail.knto.or.kr) | 등록일 : 2010.10. 22)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밴쿠버, 여행하기 가장 좋은 도시”

지난 12일 뉴욕에서 열린 '콩데 나스트 트래블러(Conde Nast Traveler)' 2010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에서 '미대륙 최고의 여행지(Best City in the Americas)' 부문에 밴쿠버가 선정됨.

밴쿠버는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시상 행사에서 5회째 '최고의 여행지'로 꼽힘.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여행전문잡지, 콩데 나스트 트래블러 독자들이 캐나다와 미국, 중남미의 각 주요도시를 문화와 지역위치, 숙박시설, 쇼핑, 친절함 등 여러 항목에서 종합적인 점수를 매기는 독자설문조사방식으로 순위가 결정되며, 올해의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전부문 결과는 콩데 나스트 트래블러 11월호에 실릴 예정임.

케빈 크루거 BC주 관광부장은 시상식 다음날 "도심의 삶과 문화, 환상적인 풍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밴쿠버가 훌륭한 휴가지로서 인정받은 것은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라며 "이번 수상 결과로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이 BC주와 밴쿠버시를 방문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냄.

밴쿠버는 지난해만해도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국제컨벤션 협회가 선정한 '북미에서 국제회의를 열기 가장 좋은 곳', 머서인력관리업체가 매년 발표하는 삶의 질 설문조사에서 '미대륙 최우수 도시' 등으로 선정된 바 있음.

(한국관광공사, 담당: 김옥신(rosablue@mail.knto.or.kr) | 등록일 : 2010.10. 22)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영국 MICE산업 361억 파운드의 경제 효과

'Britain for Events'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MICE 산업은 361억 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컨퍼런스와 미팅은 188억 파운드, 전시회와 무역 박람회는 93억 파운드, 스포츠 이벤트는 23억 파운드, 기업 환대 산업은 10억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남.

주요 미팅과 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은 영국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임. 영국내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레저 여행객들보다 72% 더 많이 소비하지만 영국 인바운드 비즈니스 관광객은 레저관광객보다 193% 더 많이 소비함. 이러한 소비는 고용창출 뿐 아니라 전시장, 호텔, 바, 식당에 매우 중요한 수입원임.

(한국관광공사, 담당: 김옥신(rosablue@mail.knto.or.kr) | 등록일 : 2010.10. 22)

[해외동향][KOTRA] 스페인 해양레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

□ 연간 26억 유로의 스페인 해양레저산업

- 세계 해양레저산업은 요트, 보트 등 장비시장만으로도 연간 500억 달러를 형성해 1~2년 이내 세계 조선산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세계 해양레저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짐(ICOMIA 보고서).
-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8000km에 달하는 해안선과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인 여건과 좋은 날씨에 힘입어 해양레저산업을 일찍이 육성해 왔음. 스페인은 요트, 보트 및 해양레저장비 제조보다는 마리나(요트 및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 개발과 운영에 투자를 집중해옴.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연간 5억 유로, 간접 유발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26억 유로에 이르며, 5만6000여 명의 고용인구 면에서도 스페인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꼽힘.
- 해양레저산업은 관련 장비 판매·대여뿐만 아니라, 정박 및 보수를 위한 시설, 식당 및 숙박시설 등 관광서비스 이르기까지 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됨. 아울러 해양레저의 높은 비용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요 고객이 고소득층이어서 시설 개발비, 고용인력 임금비 등 투자비에 대비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임. 스페인 스포츠관광항구연합회(FEAPDT, Federación Española de Asociaciones de Puertos Deportivos y Turísticos)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0개의 계류장(보트 및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공간)당 210만 유로의 경제효과가 유발됨.

□ 경기둔화로 레저용 선박 등록대수 대폭 감소, 해양레저시설 투자비 꾸준히 증가

- 최근 2년간의 경기불황으로 2008~09년 레저용 선박 신규 등록대수는 대폭 감소함. 스페인 해양레저기업연합회인 ANEN(Asociacion Nacional de Empresas Nauticas)에 의하면, 2007년 연간 13000대에 이르렀던 스페인 레저용 선박의 등록이 2008년 1만304대, 2009년 6700대로 전년대비 각각 23%, 35%의 감소함.
- 반면 해양레저 인프라의 핵심인 마리나항과 계류장 시설 개발은 2009년 기준 각각 355개, 12만6963개로 국내외 경기불황에도 전년대비 소폭의 증가를 보임. 마리나항의 경우 육상 마리나와 묘박지까지 포함하면 모두 436개에 달함.
- 해양레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진 이유는 최근 5년간 해양레포츠의 인기가 국내외적으로 높아져 스페인 마리나항과 계류장에 대한 수요가 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임시정박도 증가했기 때문임. 특히 성수기의 계류장 공급부족이 심각해 카탈루냐, 안달루시아, 무르시아, 발레아레스 제도 등의 스페인 주요지방정부는 2015년까지 5000~8000개의 계류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음.
- 스페인의 관광레저 분야 주요 개발기업으로는 Marina D'or, Aspro-Ocio, Parques Reunidos, Fadesa 등이 있음. 그 외에도 ACS, FCC, Ferrovial, OHL, Acciona 등 대형 종합건설사들도 관광레저 산업에 참여함.

- 스페인의 해양레저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마리나항의 61%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나머지 39%가 북쪽 칸타브리아해(대서양)에 위치함. 계류장은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카탈루냐 지방에 23.8%로 가장 많이 집중돼 있으며, 마요르카나 이비자 섬이 있는 발레아레스 제도지역 16.9%, 아스투리아스 지방(북쪽) 15.4%로 그 뒤를 이음.

스페인 마리나항 증가 추이



지로나(Girona)의 모박지



2009년 지역별 시설

지방명	마리나항	계류장
Baleares	55	21,515
Galicia	51	11,679
Cataluña	50	30,167
Andalucia	49	17,685
Canarias	43	7,807
Valencia	41	19,605
Murcia	19	6,521
Pais Vasco	18	4,969
Asturias	16	2,025
Cantabria	11	4,350
Melilla	1	340
Ceuta	1	300
총합	355	126,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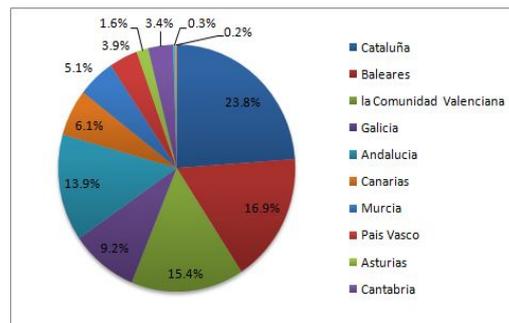
스페인 계류항 증가 추이



알리칸테(Alicante)의 육상 마리나



지역별 계류장 분포



자료원 : 스페인 스포츠관광 항구 연합 (FEAPDT)

□ 해양레저시설 사업 운영

- 스페인 내 모든 해양레저시설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관장하며, 정부 또는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승인이 이뤄진 후 개발권이 이전된 기업(양수인)에 정부가 사용권을 최대 30년까지

양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통상적으로 1개 마리나항당 1개 기업에 사용권을 부여하나 규모가 큰 항구의 경우 사용권이 2~3개 사에 분배하는 사례도 있음.

- 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은 사용기간 동안 시설 및 계류장 이용권리를 매매 및 대여할 수 있음. 스페인의 2009년 계류장 매매 및 대여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매매가는 m²당 2107.89유로, 대여비는 1년 기준으로 m²당 131.04유로임. 지역별 매매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발레아레스 제도 m²당 3500유로에 달하며, 특히 이비자 섬은 평균매매가가 4600유로를 기록함. 대여비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해양도시인 말라가시가 m²당 300유로로 전국 최고가를 나타냄.
- 스페인 내 마리나항 운영권은 몇몇 기업에 집중되기보다 지방마다 각각 다른 기업 및 기관에 분배됨.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마리나항으로는 마요르카(발레아레스 제도)의 Port Portals와 마르베야(안달루시아)의 Puerto Banus를 들 수 있음.

<p>Port Port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에 완공됐으며, 670개의 계류장 시설을 포함해 고급 쇼핑몰, 호텔, 레스토랑, 골프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공간임. 독일 사업가인 Graf Klaus의 소유인 Puerto Punta Portals사가 운영함. - 스페인의 대중적인 휴양지인 마요르카에 있는 마리나항은 주변에 유명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오는 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세계적인 요트대회인 Breitling Regatta와 Classic Omega 등이 개최돼 잘 알려진 곳임.
<p>Puerto Banu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에 완공된 마리나항으로 세계 각국 부호들의 별장이 몰려있는 마르베야에 위치, 91개의 계류장 시설과 쇼핑몰, 호텔, 레스토랑, 골프장 등으로 이뤄진 복합공간임. 스페인 독재시절의 총통, 프랑코와 친분이 깊었던 Jose Banus가 개발한 스페인 첫 고급 마리나항이며, 현재도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짐.

□ 시사점 및 전망

- 레저용 선박 제조보다 마리나항 개발과 운영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스페인 해양레저산업은 이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에 주목, 다른 국가로 사업 확장을 눈여겨보고 있음. 특히 한국과 같이 해양레저산업이 이제 막 시작된 국가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오고 있어, 최근 논의되는 한반도 해양레저산업 개발에 스페인 기업의 투자도 기대됨. 실제 마리나 개발 및 투자 매니지먼트사인 스페인 IPM사는 지난 7월 경상남도 창원, 고성, 남해 등 3곳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힌 바 있음.
- 스페인의 유명한 마리나항에서 볼 수 있듯이 마리나는 단순한 레포츠 공간이 아니라 쇼핑

물, 호텔, 레스토랑, 관련 고급 서비스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복합공간임.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만큼 동북아의 해양레저 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레저용 선박 제조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환경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은 물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국제해양산업연합회(ICOMIA, 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 스페인 스포츠관광항구연합회(FEAPDT, Federación Española de Asociaciones de Puertos Deportivos y Turísticos), 스페인 해양보트기업연합회(ANEN, Asociación Nacional de Empresas Nauticas) 및 코트라 마드리드 KBC 자체조사 종합

(KOTRA, 담당: 마드리드KBC 홍정아(clara@kotra.or.kr) | 등록일 : 2010.10. 22)

[해외동향][KOTRA] 중국인 해외여행객, 숫자도 늘고 씬씀이도 더 늘어

- 2010년 중국인 해외여행객 5400만 명, 여행 소비액 480억 달러 전망
- 2009년 해외여행 소비액 437억 달러로 최초로 관광수지 적자 기록

□ 중국인 해외여행 급증

- 2009년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4766만 명으로 4% 증가했음. 신종플루, 금융위기 등 악재 속에서 세계 전체 여행객 수가 4% 감소한 것과 대비됨.
 - 2010년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2686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으며 9월 추석 및 10월 국경절 연휴 등을 감안하면 2010년 전체 해외여행객은 5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업계 관계자는 5400만 명의 여행객은 적은 수가 아니지만 중국 인구에 비하면 여전히 병산의 일각이며, 향후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인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것은 관광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국인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임.
 - 항공편 증가 등 해외와 연결되는 교통편 증가, 비자제도의 편리화, 최근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해외여행 비용하락 등도 해외여행 증가의 큰 요인임.
- 중국인 해외여행객의 주요 계층은 25~44세임. 또한 월수입 5000위안 이상의 수입이 비교적 높고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자가 전체 해외여행객의 3/4 이상임.
 - 이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 이해도가 높고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며 어느 정도의 소비력을 가짐. 또한 개혁개방 이후 성장세대로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해외여행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함.

□ 다양화·세분화·고급화

- 중국인 해외여행 초기였던 1990년대와 비교해 현재 해외여행은 점차 다양화, 세분화, 고급화되는 추세임. 관광지의 경우 여전히 가까운 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아 및 한국, 일본 등 국가 위주이지만 점차 구미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여행도 늘어남.
- 여행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더욱 세분화됨. 물론 절반 이상이 일반 관광 목적의 여행객이지만, 휴양여행도 급증하며 그 외에 비즈니스 회의, 유학, 문화·과학기술 교류, 종교, 의료 등 다양한 여행상품이 여행객의 목적에 따라 출시됨.
 - 예전과 같이 단순히 유명 관광지만 방문하고 움직이는 주마간산 식의 관광보다는 홍콩이나 파리의 ‘쇼핑여행’, 몰디브·그리스의 ‘신혼여행’, 한국·스위스의 ‘스키여행’, 영국·미국의 ‘여름캠프’ 등 주제가 있는 여행이 늘고 해외여행이 고급화되는 추세임.

□ 더 크게 증가하는 ‘해외여행 소비규모’

-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보다 중국인 여행객의 해외 소비규모는 더욱 빠르게 증가함. 1982년 통계 작성 이래로 중국의 해외여행 소비규모는 매년 40% 정도의 속도로 증가함.
 - 2009년에는 해외여행 소비가 437억 달러에 달했으며 해외여행객 1인당 평균 900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은 2010년에는 해외여행 소비액이 전년대비 14% 증가해 4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해외여행 소비규모는 이미 세계 4위를 차지함. 해외여행 소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최초로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했음.
 -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수의 절반임에도 소비규모는 오히려 더 크다는 점은 중국인 해외여행객들의 소비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함.
- 홍콩과 마카오는 2003년부터 중국 본토 국민들의 자유 여행이 시작되면서 매년 평균 각각 1800만 명, 1500만 명이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고 홍콩에만도 150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줌.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홍콩의 관광업뿐만 아니라 소매업, 요식업 등에도 큰 시장을 제공함.

□ 중국인 해외여행, 외자 여행사에도 개방

-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펼침.
 - 중국정부는 2009년 12월 국무원이 ‘여행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외국 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에 대해 점진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데 이어, 2010년 9월 7일 ‘중외합자경영 여행사의 해외여행 업무 시범경영 감독 잠정방법’을 발표해 외국 합자여행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를 허가했음.
- 외국 합자여행사도 중국인 해외여행 업무에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 주요 여행사들이 중국 로컬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 중국인 해외여행객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세계관광기구의 예측으로는 2020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설 것임. 해외여행객의 소비수준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각국은 중국인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음.
- 중국인 해외여행객의 상품수요 증가와 외자여행사의 해외여행업무 개방 등에 따라 중국 내 외국 합자여행사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여행 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중국인 해외여행객을 유치하고 이들의 소비를 이끌어 내려면 이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여행상품의 기획과 홍보가 필요함.

자료원 : 人民日報, 北京娛樂信報, KOTRA 다롄 KBC

(KOTRA, 담당: 다롄KBC 김우정(yuting95@kotra.or.kr) | 등록일 : 2010.10. 26)